

말이나 배우는 자를 추종하여 일으키고만 판단해서
는 아니되나, 이른바 '백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
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며, 지혜로운 배움
은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배움은 생사(生死)
를 이룬다'고 함이 바로 이같은 뜻이다.

계초심학인문

세계 과학기술 흐름 한눈에

노벨상 수상자 초청 국제학술회의 폐막

개교 95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부터 학술문화관에서 진행된 노
벨상 수상자 초청 국제학술회의
가 11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현재 급부상 중인 합성금속과
반도체 초미세 크기에서 나타나
는 양자현상을 다룬 이번 학술회
의는 노벨상 수상자, 노벨상 심
사위원 등 세계적인 석학 6명을
비롯한 과학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연구논문 발표와 열띤 토
론을 벌였다. 또한 노벨수상자
중 1명인 Klaus von Klitzing 박사
가 진행한 특별강연은 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
다. 이날 Klitzing 교수는 현재 연

구중인 전자와 광전송에 양자현
상의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 연구자
들이 세계적 석학들과 교류함으
로써 세계 과학연구의 흐름을 배
우고 국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해외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학술회의를 주최한 SRC의 강
태원(물리학) 소장은 "국제사회
에서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나노기술개발경쟁은 치열
해 지고있다"며 "이번 학술회의
는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개발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교수는 "본교의 목표인
'과학기술동국'을 대외적으로 알
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

였다.

이렇듯 이번 학술회의는 과학
기술 동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본교는 그동안 정보통신과 공
학을 중심으로 21세기 첨단 테크
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해 왔다. 이를 위해 정보
통신분야를 별도의 단과대학으
로 독립시키고 매년 반도체 분야
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
과 지난 99년에는 기초과학연구
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
가 동시에 과학기술부의 우수연
구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
한 연장 선상에서 이번 학술회의
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기사 5면



조심조심 ... '스파게티국수 다리 경연대회'가 지난 12일 본관 중앙당에서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다. 기계공학과 공학교육인증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총 140개 팀이 창의적으
로 제작한 다리들을 출품해 과학동국의 내일을 기약했다. >순심민 기자 nee9292@dongguk.edu

지면안내

변함없는 그림, 스승이시여 7면



미디어를 통한
스승의 모습과 불
가에서의 사제관
계를 통해 우리
마음의 어버이인
스승의 의미를 되
새겨 보고 참된
스승의 모습을 그
려본다.

5월항쟁 10주년 기념 토론회 4면

디지털시대 가상 시나리오 5면



생명윤리 논쟁

장 애 순 (불교대 불교학부)

요즘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
아오르고 있다. 소위 낙태와 대리모 그리고 뇌
사와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의사협
회가 제시한 윤리지침의 채택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성급히 추진되었다는 비판 때문에
일단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윤리논쟁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중아환경'은 "호흡과 체온과 의식이 떠나
는 것이다"라고 죽음을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의 정지는 폐의 기능이 멈추는 것
을 의미하고, 체온이 식는다는 것은 심장기능
이 다한 것을, 의식작용이 없다는 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멈추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즉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버
리는 이기심 때문에 별레 한 마리를 놓고도
이것은 좋은 별레, 저것은 나쁜 해충이라고
분별하고 차별한다.

이는 기득권을 가진 인간들의 가치기준
이 그렇기 때문이다. 설사 현실적으로는 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
이더라도 모두가 소중한 생명임에는 틀림
이 없다.
따라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안락사의 문
제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편익과
실용성이 불려온 이기적인 발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불교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종교이다. 따라서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곤충에 대한 살생 역시 죄악시하
고 있다. 하물며 현대의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서 도출된 편의적인 발상에서 환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들어준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경제적
사정 여하 때문에 인위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
게 하는 것이 어찌 용납될 것인가. 안락사는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써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야구부 전국대회 8강진출
오늘(14일) 상무와 경기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제51
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 8강
에 진출했다.

지난 7일 연세대에 3대2로
승리해 16강에 진출한 야구부
는 11일 가진 중앙대와의 경기
에서 이대환이 호투하고 강귀
태가 타격에서 활약해 6대3으
로 이겼다.

야구부는 오늘(14일) 오후 2시
동대문운동장에서 상무와 4강
진출전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체육부의 한 관계
자는 "상무는 프로선수가 많아
강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실
질적인 결승전이 될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연구년·해외연수 교원
강성운 교수 외 10명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
육)는 2001학년도 2학기 연구년
과 해외연수 교원을 선발했다.

이번에 연구년으로 선발된 교
원은 △홍기삼(국어국문학) △
조훈영(물리학) △양영진(사회
학) △강성운(북한학) △유석천
(경영학) △원지선(전자공학)
△성관제(기계공학) △임영정
(역사교육) △오원배(미술학)
교수 등 모두 9명으로 올 9월
부터 1년간 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박상진(화학공학) 교수는
해외연수 교원으로 선발돼 내년
3월부터 6개월 간 미국에서 연수
를 받는다.

14차 완등 앞둔 박영석 동문을 만나
"히말라야 정복위해 K2로 간다"

로체까지 13좌 성공 ... 오는 28일 출정

'에베레스트, 마칼루, 브로
드피크...'

'히말라야의 사나이' 박영석
(동국산악회, 체교91졸) 동문은
8천m이상 13좌를 정복했다. 지
난달 30일 로체(8,511m) 등정
에 성공하면서 이제 14좌 완등
까지 남은 봉우리는 K2(8,611m)
하나 뿐이다. 오는 28일 출정
을 앞둔 박영석 동문을 만나
보았다.



박영석(체교91졸) 동문

- 이번엔 로체봉을 다시 오
른 이유는.

= 세계적으로 13좌 등정을
공인 받았지만 97년 로체 정
점을 40m 정도 남겨두고 하산
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
리고 14좌 완등을 앞두고 한
치의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
았다.

- 히말라야 14좌 완등은 어
떤 의미인가.

= 모든 산악인들의 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에
도전하지만 현재까지 14좌 완
등에 성공한 사람은 세계에서
단 7명뿐이다. 완등을 위해 어
는 정도의 노력과 의지가 필
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
과이다.

- 일각에서 14좌 완등경쟁

에 대해 지나치게 등정결과판
을 따지는 '등정주의'로 흐르
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
는데.

=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은
오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동이다. 자신의 몸조차 가누
기 어려운 8천m 이상의 고도
에서 얼마나 더 난이도가 높은
코스를 통해 등반했는가를 따
지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 K2 등정을 앞둔 각오는.

= K2는 일년 내내 기온이
불안정하고 다른 봉우리에 비
해 등반로의 난이도가 높아 8
천m이상 고봉 중에서도 까다
로운 편이다. 그러나 14좌 완
등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최
선을 다하겠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14기 서총련 출범식

지난 12일 경희대에서 김주훈 의장 취임

제14기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
합(이하 서총련) 출범식이 지난
12일부터 이틀동안 경희대에서
치러졌다.

출범식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담판
화영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
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총련 출범
식 등을 기치로 진행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서총련 대의원 대
회에서 선출된 김주훈 총학생회
장이 제14기 서총련 의장
에 취임했다.

이날 서울지역 40여개 대학 학
생들은 오후 2시 종묘에 모여 '학

생대표 수배 반대, 구속학우 석
방,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평화
행진을 종각까지 진행했다. 이후
경희대에서는 △각 대학 반미구
국단식단 상황보고 △과·반 학
생회 깃발경연대회 △민중가요페
스티벌 '우리나라'의 공연 △100인의 합
창 등이 이어졌다. 또한 이번 출
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시학
생위원회에서는 축하서한을 보내
왔다.

한편, 오는 18일 본교 만해광장
에서는 제9기 서울 남부지역 총학
생회 연합 출범식이 진행될 예정
이다.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오는 22일부터 3일간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
학) 학사지원실은 올해 여름 계절
학기 수강생을 오는 22일부터 24
일까지 3일간 모집한다.

여름 계절학기는 오는 6월 22일
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16일간 진행된다.
재학생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학점은 6학점으로 제
한된다.

수강과목은 전공과목이 7명 이
상, 교양과목이 10명 이상 신청해
야 개설되며, 수업시간과 개설교
과목은 오는 6월 1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1학점당 6만 5천원
이다.

동국웹진 발행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
관리학)은 지난 10일 동국웹진을
발행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되는 동
국웹진은 학사행정과 대학생활,
행정부서에 대한 소식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정찬합시다'나 '사찰
여행정보'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정보관리
실장은 "동국웹진은 국내대학 최
초의 웹진으로 매주 이메일을 통
해 동국인에게 학교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 발행하는 동국 소
식도 웹진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졸준위 취업주간 행사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문
영수·토목4, 이하 졸준위)는
오늘(14일)부터 일주일동안
취업주간으로 설정하고 4학년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여러 행사를 마련했다.

취업강연회

- 1차 - 유통업계 취업전략
(5월 16일 오후 6시
학술문화관 덕암 세미나실)
2차 - 벤처기업 취업전략
(5월 18일 오후 3시
원흥관 E103)
3차 - 전자·IT업계 취업전략
(5월 18일 오후 6시
원흥관 E102)

이미지 메이킹

시간 : 5월 17일 오후 3시
장소 : 중앙도서관 앞
내용 : 여름철 스킨케어 방법,
이미지 메이킹과 코디법

모의토크 경진대회

일시 : 5월 19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동국관 M302
접수 : 5월 14일~5월 18일
졸준위실에서

직무적성검사

1차 - 5월 16일 오후 3시
2차 - 5월 16일 오후 6시
3차 - 5월 17일 오후 3시
장소 : 본관 중앙당
접수 : 15일까지 학생상담실,
졸준위실에서

동대신문
기획광고

빛바랜 사진으로 묻어 두기엔...



발전기금 ARS 7000-119

마음 한 구석
추억의 앨범을 갖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러나 1980년 5월은
피비린내 나는 상처와 분노로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너무나도 아픈 추억입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이
군사정권의 총칼에
사라져갔던 5월 18일!

잊을 수 없기에,
아직 잊어선 안되기에
'5.18 민주화 운동'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동대신문사

# 다양한 학문 통합한 교과목 개설

## 5월말부터 교양필수과목 개편연구 ... 팀티칭제도 통해 심층적 강의 예상

여러 분야의 학문을 통합한 기초 학문 강화를 개설하고,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를 번갈아 강의하는 팀티칭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양필수 과목이 대폭 개편된다.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5월말까지 교양강좌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종교, 철학, 예술, 과학, 경제 등 다양한 학문들의 기초적인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새로 개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인간과 문화', '자연과 문명' 등의 과목을 연구중에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각각 다른 분야를 전공한 4, 5명의 교수가 역할을 분담해 한 강좌를 번갈아가며

강의하는 팀티칭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서양의 인간관과 가치관에 대해 다루는 '인간과 문화' 과목의 경우 △종교와 철학의 인간 △예술과 문학의 인간 △정치와 경제의 인간 △과학과 생명의 인간 등 네 분야로 나누어 4명의 담당 교수들이 강의를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박근서 과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기초지식을 쌓도록 했다"며 "각 분야별로 전공교수가 맡게 돼 보다 심층적인 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과대와 정보산업대에서는 △기술과 사회 △공학 경제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교양필수과

목을 팀티칭 제도로 강의하고 있다.

'기술과 사회' 과목을 강의했던 구승희(윤리문화학) 교수는 "공학 적 원리만을 배우던 학생들이 '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돼 쓰이는가'를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같은 과목을 여러 교수가 담당하다 보니 교수끼리 서로 자신의 강의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팀티칭으로 강의할 경우 한 강좌를 여러 교수가 맡게 돼 강의의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교수들(교수는 "강좌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수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학사지원실은 학생들의 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동서고전의 이해' 과목을 준비중이다.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졸업까지 최소한 6권의 고전을 읽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초필수과목의 개편은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현중 기자  
dizy20@dongguk.edu

## хин전무대

### 새우의 한

0...얼마 전 사회학과 홈페이지에 난데없이 붉은 화면과 미국을 향한 욕설이 나타났는데.

알아보니, 중·미의 전투기 충돌 사고 이후 중국 해커들이 추적을 지연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홈페이지를 해킹 하는데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서라고.

이는 미국 아마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MD홍보방문 등 미래저래 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 해커들까지 거드는 격이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왈, "우리가 동네북이냐?"

### 어학특강?

0...얼마 전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시종일관 여러동질 했다는데.

독일어로 강연이 진행됐음에도 통역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 중강당을 찾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강연에 허탈해 하며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고.

강연을 듣다 나온 한 학생 한마디 "노벨 수상자의 가장 인상깊은 말씀은 Danke schön"

### 편없는 편입생

0...동악 내 불평등을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다는데. 편입생들의 학번이 태대학과 달리 편입년도에 맞춰 주어져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분명한 선후배 관계로 학교생활이 불편할 뿐더러 취업할 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등 차별대우가 심하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왈, "고학년 편입생, 그러나 고학번은 될 수 없다"

### A-YO

0... '수업에 브레이크를 거는 마이크'

최근 동국관 대형강의실은 마이크 시험장을 방불케 한다는데. 이유인즉, 마이크가 자주 고장나 이를 교체하느라 강의실은 어수선하고 수업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몇 달째 마이크 고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고장난 마이크는 줄어들 줄 모르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왈, "동국관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마이크 체크업(A(해)-Yo)"

## 일본 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문화우월론에서 벗어나라”

### 한·일, 상호교류의 역사적 관계 인정해야

임나일본부설의 기정사실화, 한국 경제병합의 정당화 등 일본 역사교과서에 게재된 총 35개 항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에도 일본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한 가운데 본교 일본학술연구소(소장=공로명)는 지난 11일, '고대 일본문화 형성의 한 반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일본문화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을 초청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세미나는 먼저 '신라의 왕경(王京) 경주와 일본의 등원경'에 관한 발표로 시작했다. 샌다 미노루 박사는 일본 나라반지 남쪽에 위치한 후지와라교우(등원경) 지역이 중국이 아닌, 신라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지와라교우가 건설된 7세기 후반은 당나라와의 교류가 중단된 일본이 신라와 문화 교류를 활발히 했던 시기이다. 바둑판 모형인 후지와라교우의 계획을 보면 직사각형의 장형성보다 정사각형 블록의 경우가 가깝다.

또한, 성곽을 쌓지 않고 도시 남쪽에 왕궁을 세웠던 모습도 경주와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야 와비코 박사는 '무사도의 새로운 견지(見地)'라는 주제로 사무라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할복이라는 절대복종으로 대변되던 사무라이의 이미지는 후대 작가들에 의해 왜곡됐다는 것이다. 그는 에도 막부 시대의 무

사를 예로 들어 "주군의 죽은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립성 있는 자야말로 진정한 무사"라고 주장했다.

세번째 발표자 미스타 가즈노부 박사는 일본의 전통놀이인 '헨가(連歌)'의 기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 사회에 끼친 헨가의 영향을 이야기했다. 헨가는 5·7·5와 7·7의 운율을 반복하며 여러 사람이 글을 짓고 타인의 생각을 추측하는 놀이로 자기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행동패턴은 헨가에 의해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일본연구센터 객원 교수인 신용태 교수도 참석해 '고대 동아시아의 문신·자(子)의 유기(流棄)'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문자에 나타난 동북아시아 문명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글자 하나에서부터 한 문명의 민속호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니시타니 다다시 박사는 "분명 일본 고대 문화는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며 "한국내 일본문화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생성되지 않는 흑요석이 남해안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양국 사이에 상호교류가 분명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본교 이기동(사학) 교수는 "한·일 양국은 같은 동아시아 문명권 안에 속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학술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오는 18일 춘계명찰순례 총복 진천군 보탑사로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보탑사로 춘계명찰순례를 떠난다.

총복 진천군에 위치한 보탑사는 300년 된 느티나무로 유명하다.

이번 행사는 교수, 학생, 직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4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학생복지실에서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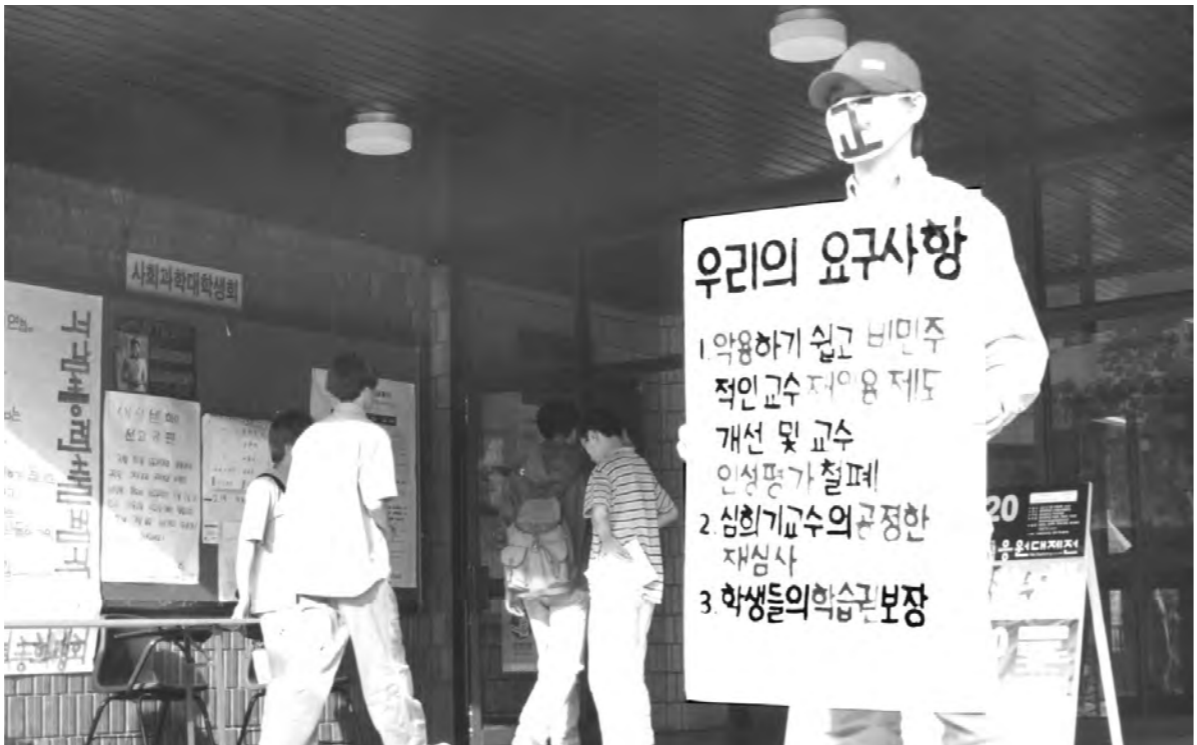
## 제6회 동국문화예술제 90주년기념관 예술극장

문화예술대학원(원장=조승환·미술학)은 오늘(14일) 오후 7시30분 90주년 기념관 예술극장에서 '제6회 동국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개교 9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예술제는 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과 선배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풍물 △가야금 병창 △대금 산조 △범패와 불교무용 △남도민요 등 우리나라 전통예술 공연으로 진행된다.

## 장기근속직원 표창 개교기념식에서

지난 7일 개교 95주년 기념식에서 11명의 직원에게 장기근속 표창을 수여했다. 장기근속 표창 직원은 △30년 근속=김진영 △20년 근속=이천중, 손재영, 안재봉, 이광구, 조성문, 신영배, 안상호, 이상원, 정홍재이다.



법과대 학생회(회장=손빈환·법4)는 지난 10일부터 이틀동안 중앙도서관, 본관, 동국관, 상록원 앞에서 심희기 교수 사건에 대한 법대 학생회의 요구안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마스크에 써있는 '비를 정(正)' 자가 인상적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5.18 정신계승주간 '오월에서 통일로' 광주민주화운동 바로보는 계기 마련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 이하 학복위)는 5월 18일에 즈음하여 '5.18 정신계승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의 이 행사는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중앙도서관, 동국관 앞, 그리고 원흥관 앞에서 이틀씩 열린다. 주요행사로 성조기·일장기 밝기 운동, 사진전, 5.18로 삼행시 짓기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학복위가 한 달에 한번씩 주제있는 영화를 선보이는 기획영화제에 5.18 관련영화인 '오! 꿈의 나라'를 상영한다.

이와 관련해 김태광 학복위 위원장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이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각원 고승초청법회 '현대인을 위한 선' 주제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8일 오후 4시 본관 중앙당에서 고승초청법회를 개최한다.

'현대인을 위한 선'이라는 주제로 한마음선원장 대령 스님이 설법하는 이번 법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안중철 법사는 "불교의 선을 통해 현대인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5.18 광주 순례단 모집 내일까지 각 단과대에서

총대의원회(의장=유승우·국제4)는 내일(15일)까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맞이해 광주 순례단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받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순례일정이 진행된다. 순례단은 오는 19일(토) 저녁 학교에서 출발해 20일 아침 망월동묘역을 참배하고, '5.18 추모 문화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장학액(장학금액) : 우수장학(등록금 30%)  
가. 단과대학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  
가. 2001-1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3.0미만자는 추후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3. 신청기간 : 2001. 5. 16(수) ~ 30(수)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5.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6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1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대학 교학부에 문의바람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부에 제출함.  
2)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처리됨.  
다. 지방세(재산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학 생 처**

### 하계방학 해외봉사 단원 모집

2001학년도 하계방학 기간 중 해외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목 적 : 세계화 시대를 맞아 개발 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교류를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국제경험과 봉사능력을 향상시켜 평화와 사랑하는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2. 신청 자격 : 재학생
3. 선발 기준  
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특기가 우선  
나. 각 전문분야별 봉사회 회원  
다. 봉사활동 경력자 및 특기가 우대  
라. 학업 능력자(중국어) 우대  
마.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파견 대상자 선발은 봉사단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선 발 인 원 : 20명
5. 봉 사 기 간 : 2001. 7. 17 ~ 7. 31(기간 중 2주) 「14박 15일」
6. 신 청 기 간 : 2001. 5. 14 ~ 5. 18(5일간)
7. 봉 사 지 역 : 중국 요령성 심양
8. 봉사활동 내용 : 한글교육, 컴퓨터, 한국어, 태권도, 사물놀이, 레크리에이션, 노력봉사
9. 소 요 경 비 : 학생부담 : 1인당 45만원 (기타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
10. 신 청 서 류 : 지원 신청서 1부(봉사단 소정 양식)
11. 접 수 처 : 동국참사람봉사단(학생복지실: 본관 3층) (※ 위 일정은 봉사 지역의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문의 바람.  
- 문의 전화 : 2262-3049 -

**동 국 참 사 람 봉 사 단**

### 경향신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

1. 일 시 : 2001. 5.15(화) 16:00-18:00
2. 장 소 : 다양한 세미나실
3. 강 사 :  
가. 김태근 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부장 (국문 75학번)  
나. 한인섭 편집부 차장 (조경 77학번)  
다. 우철훈 사진부 기자 (경영 81학번)
4. 강연내용  
가. 채용일정 설명  
나. 언론의 역할과 언론인의 위상  
다. 입사시험 준비요령  
라. 질의 응답

※ 기타 문의사항은 홍보실(전화 3026)로 연락바랍니다.

### 임용고사 설명회

1. 일 시 : 2001년 5월 15일 (화) 14:00 ~
2. 장 소 : 학림관 소강당
3. 목 적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의 학문적 심화 및 의욕을 고취하고 임용고사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교원임용고사 설명회를 개최함
4. 대 상 :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5. 교육내용  
1) 2001년 시행 교육학 및 전공 출제경향 분석  
2) 전국 교육공무원의 현실과 전망  
3) 2002년 교원임용시험 전공 및 교육학 수험대책 및 합격전략  
4) 2002년 교원임용시험 눈술 및 면접시험 대처방안  
※ 임용시험 수험대책 및 합격전략 (참고자료 무료 배부)
6. 주 최 : 사범대학 교학과 (2260-3380)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

### 언제나 서남총편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민족동국 학우 여러분을

## 서울지역 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광주 민주항쟁 21돌  
5월 18일 늦은 6시

— 장 소 —  
만 해 광 장

**총 학 생 회**

EU의장 북한 방문의 의의와 성과

논단

미국에 대한 경고와 함께 통일 노력 재시도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5월 초 평양과 서울을 잇달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먼저 유럽 연합이 제한적일지라도 남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흐뭇하다.

작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붓물처럼 쏟아지던 남북 사이의 각종 회담이 지난 3월 한미 정상 회담 이후 모두 중단된 채 김정일 총비서의 서울 답방까지 불투명하게 된 데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통일 문제 및 남북 관계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온 미국을 조금이나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강대 국가'들의 위협을 핑계삼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세우겠다고 세계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한 유럽 연합의 경고가 아니겠는가.

EU, 남북관계 중재자 역할

이런 유럽 연합에 대해 김정일 총비서가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은 매우 뜻깊다. 첫째, 미국에게 대결보다는 협상을 하겠

다는 뜻을 전했다. 당분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부시 행정부에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발미를 주지 않으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 사항을 지킬테니 미국도 약속을 지키라는 신호가 아닐까. 이에 덧붙여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화해의 손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한에게도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킬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전했다. 지난 3월의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나타난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남한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고, 북한은 미국을 남북 화해의 최대 장애물로 절감하면서 각종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서울을 방문하여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싶다고 밝힌 것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당장 서울을 찾기는 어렵지만 남한과의 화해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셋째, 유럽에게는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가 적지 않은 관심을 가져 왔지만, 남한은 화해 분위기를 그르칠까봐 다루지 못했고, 미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매달리느라 건드리기 어려웠을텐데, 유럽 연합이 한반도 평화의 객관적 중재자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담 없이 챙긴 것이다.

체제 통일 가능성 열어

넷째, 국제 사회에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걸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나는 특히 북한이 경제 개혁에 관한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유럽에 조사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에 흥분을 억누르기 힘들다. 남북한의 체제 통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겼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본주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북한은 '우리스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며 죽어도 사회주의를 지키겠다고 했기에, 한 쪽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전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제 통일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다.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자유와 사회주의의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북쪽에서는 자본주의의 변형이라 했고 남쪽에서는 사회주의의 사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가.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남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통일 국가의 체제로 남북의 체제를 수렴한 사회민주주의 또는 북유럽식 복지 국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작년 10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총비서가 북한 경제 체제의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 특히 '스웨덴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 그 사실을 스웨덴 총리에게 확인시켜 준 셈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 국가의 이념과 체제에 관한 문제는 당분간 접어두고 작년 6월에 합의한대로 국가 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향한다면, 점차적으로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 사회로의 통일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설

MD체제, 미국 패권 야욕의 결정체

'세계의 경찰' 미국이 이른바 '불량국가'에 의한 미사일 및 핵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 동맹국들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MD체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방국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밝힌 MD체제는 이전 NMD체제를 확대한 것으로 지상 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 위성방어체제까지 범위를 확대해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냉전체제 이후 위기에 빠졌던 방위산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엄청난 무기판매로 국익을 챙기려는 심산이 불보듯 뻔하다.

앞으로 MD체제를 우려한 세계 각국은 안보위협을 느낀 나머지 군비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견제를 받고있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 군비증강의 연쇄파동을 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김에 의해 MD체제에 참여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반세기만에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를 거꾸로 돌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랜 우방으로 그간 미국의 영향을 받아온지라 매우 난처한 입장인 모양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오만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군비경쟁 촉발, 기술상의 난점 외에도 '불량국가'로 찍힌 우리의 반쪽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미국의 MD체제 구축 움직임에 '딴지'를 걸고 '저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폭력 학칙제정 기본부터 바로서야

지난달 17일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학칙규정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 반성폭력에 관련된 학생준칙은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에 확정된 규정은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 특색이다. 즉 적용범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성폭력을 방조한 행위도 성폭력으로 간주함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경주캠퍼스의 경우 성폭력 학칙제정과 관련된 시설의 보완과 전문상담원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폭력 신고 접수와 상담을 맡게 되는 여학생실을 살펴보면 세 명 남짓한 공간에 도서와 영상자료까지 진열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 상담원이 상주해 있지 않아 성폭력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상담시설과 전문상담원의 충원은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으로 한시바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경주캠퍼스의 경우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성폭력에 관한 명확한 학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방비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교내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속제로 남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폭력 문제는 우리 대학에서 영원한 숙제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위기와 극복방안

교육 당사자들의 '스스로 개혁' 필요

국가 정책만으로 불가능 ... 민교육 도입해야

오는 2004년부터 초·중·고교 전 학년에 걸쳐 적용·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의 목소리가 높다. 7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사교육비 증가시키고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해 7조원이 넘는 과외비 부담과 기초학력이 저조한 학생 속출 등으로 우리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이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교육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비판만 준비해 교육자와 시민들이 교육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시작으로 지난 7일 동송동에서 '위기의 한국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한국교육연구소 유상덕 소장은 "그간 수 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해 왔지만 상처만 더욱 깊어져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일제시대부터 수업내용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의 모든 제·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정책을 펴 개별 학교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 김신일(교육학) 교수는 "이제는 국가가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공립 학교에 자유재량권을 최대한 주고 사립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전체 학교에 필요한 기본 틀만 제공하고 교육방식이나 교육 내용을 단위 학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정보화로 인해 교육기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강대 정유성(교양과정부) 교수는 "공교육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기는 힘들다"며 "민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개혁과 함께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민교육은 교육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닌 학부모, 교사 등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세워진 11개의 대안학교가 민교육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대안학교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부족했던 체험적인 학습이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 대안학교는 그 수나 수혜범위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90년대부터 시작된 교육시민운동으로 민교육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교육시민운동으로 시작된 민교육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완벽한 대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더 나은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시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발달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있는 비판과 더불어 국가와 교육 주체가 함께 교육문화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i@dongguk.edu

동약로

속빈 강정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해마다 단체 체육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온남골 대운동장은 경기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이다.  
 “피구 선수가 모자라! 빨리 선수 좀 찾아봐!”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경기에 참가할 선수를 찾아 동문서주한다. 그러나 경기 시작 시간이 지나도 참가인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 우리 과는 기권이야!”  
 결국 최소 경기인원 20명을 채우지 못한 채 경기를 포기하고 뒤돌아 선다.  
 “우리 교수님께선 응원하라고 휴강까지 해주셨는데.”  
 “다음 번엔 나도 안 올게야.”  
 한 학생은 수업도 빠지고 기다린 것이 억울한 모양인지 다음 번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힘찬 함성으로 가득 찼던 활기찬 체육대회 광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저기 불평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응원소리를 대신하고, 경기인원을 채워 넣기에 급급한 모습만 비춰질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공 결정을 마친

2학년 학생들은 학부제 입학 당시 배정된 학과 경기에 참여해 자신의 전공 학과와 대결하는 뜻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늘날 대학사회는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학생들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아 선후배간의 친밀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감을 찾기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과 행사에 뚜렷한 참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에서 활동 공간을 찾기 못한 학생들은 점점 개인적인 문화로 빠져들기도 한다.

학내 행사가 대학 공동체 문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 민주화의 봄 외치던 10년전 오늘

## 5월 항쟁 10주기 토론회 열려 ... 역사적 의미 재조명 활발



사진:우정현 기자

지난 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91년 5월 대투쟁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강경대?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도 있 었나?”

강경대. 91년 4월 26일 대남 공권력이 내리친 쇠파이프에 맞아 참혹하게 삶을 마감한 명지대 1학년 학생이다. 최후탄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91년 봄을 보낸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 이름이 사 람들에게 쉽게 잊혀지는 것을 볼 때마 다 아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한다.

강경대군 죽음을 이후 5월 '제2의 6월 항쟁'이라 불릴 정도로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전국을 뒤덮었지만 이렇다할 역 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 억에서 잊혀져 갔다.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 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지난 9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91년 5월 대투쟁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

렸다. 토론회는 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이하 전민련) 한상렬 공동의장과 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5기 김종식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 조 이수호 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강경대군의 죽음은 ‘우 연하게 일어난 치사’라기보다는 통치권 말기 권력누수현상을 막기 위한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강경대군의 죽음을 계기로 노태우 정 권의 퇴진과 민주화를 외치며 대학생과 노동자,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무려 11명 이 분신하는 일찍이 없었던 사태가 벌 어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운동 지도부 가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분신자살을 선행하고 있다”며 의미를 깎아 내리기

에 여념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분신 자체 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이를 체제전복 세력의 반인륜적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지배 논리일 뿐”이라며 “11명의 소박하고 평범한 젊은이들을 ‘열사’로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지적했 다.

이어 이덕우 변호사는 91년 5월 민주 화 운동의 성과에 대해 “그동안 분열되 고 흩어져 있던 민주 세력들이 신속하 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 했다. 반면 지도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국민이 동참하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발 전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 았다.

91년 5월 민주화 운동이 10주기를 맞 이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91년도 전대협 의장 김종식씨는 “역사를 되돌아 보면 과거청산이 제대 로 이루어진 일이 한번도 없었다”며 민 주화운동 보상법을 철저히 시행함과 동 시에 91년 열사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 도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했지만 오늘날에도 여 전히 유효하게 느껴지는 시다. 강경대 군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는 오재현씨는 “자연의 봄은 왔지만 역사 의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며 “아직 도 미흡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열사들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라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목사를 만나

## “보수세력 장기집권 저지 큰 성과”



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91년 5월 항쟁의 성과를 꼽는다면.  
 = 무엇보다 대통령 직선제 대신 내 각제를 실시하려는 보수세력의 시도를 저지하면서 이를 통한 보수세력의 장기

집권 음모를 막아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표출된 민주화에 대한 열 망이 현재 재야단체의 중심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전국연합을 창설하는 원동 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우 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 김기실씨 유서대필 사건 등 정권 에 의해 조작된 일의 진상규명이 이뤄 져야 한다. 당시 정권은 분신한 김기실 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신 써줬다고 하면서 운동 세력의 도덕성을 공격했지 만 이는 조작이라는 주장이 여러번 제 기됐다. 다음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열사들의 민주화 운 동과 6·15 공동선언은 거리가 멀어 보 인다. 하지만 열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민주화의 진전도 어려웠을 것이고 남북 이 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힘들었 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 국민추모제'가 다음달 10일에 열릴 예 정이다. 민족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제를 전체 민주세력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 이미티지방한, 무기강매가 목적 한반도 평화위해 MD반드시 막아야



부시가 MD와 이미티지를 앞세워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 성된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가 미국의 리 처드 이미티지 국무부 부 장관 일행의 방한에 항의 하는 시위를 벌였다.

문정현(SOFA 개정 국민 행동 상임대표) 신부 등 공 대위 관계자 2백여명은 지 난 9일 오후 3시 종묘공원 에서 '미사일 방어망(MD) 규탄대회'를 열었다.

공대위 위원장인 홍근수 목사는 대회사 를 통해 “부시 정부의 MD구축은 NMD·TMD와 이름만 다를 뿐 세계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음모”라며 미국의 MD구축 을 비판하고 “이미티지의 방한은 무기강매 를 위한 것”이라고 규탄대회의 의의를 설 명했다.

이어 지난해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언론에 발표한 녹색연합 박경조씨 의 규탄연설과 인천공항에서 이미티지 방 한 저지 시위를 벌이고 돌아온 문정현 신 부의 상황보고가 진행됐다. 전국연합, 한 총련 등 10여개 단체소속 30여명의 공화투 쟁단은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에 둘러싸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MD를 막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 협정도 다 물 건너 간다”고 미사일 방어체 제의 즉각적인 종단을 촉구했다.

규탄대회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 사일 방어체제를 당장 중단하고 여기에 사 용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인류 복지에 사

용해야 한다”는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처장 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저녁 이미티지 부 장관 일행의 숙소인 서울 하얏트호텔 앞 에 서 오후 7시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회원 들이 한시간 간격으로 밤을 새며 ‘탈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다음날에는 외교통상부와 미대사관에 항 의 서한을 전달하고 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시위를 벌였다. 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던 도중 50m 앞에서 경찰에 포위당하자 공대 위는 연좌시위로 경찰에 항의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대사관과 20m 이상 간격을 두고 1인시위를 하면 집시법에 적용되지 않는데 도 경찰이 시위자들의 행동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도 'MD 반대' '이미티지 고 홈'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5·16쿠데타 40년을 맞아 '친일파·독재원흉 박정희 청산 주간 선포식'이 지난 10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젊은날 다카기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친일에 앞장서고 4·19 혁명의 꽃을 군홧발로 짓밟으며 군부독재를 펼친 인물 박정희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박정 희 모형을 불태웠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디지털시대 가상 시나리오

# 2005년 어느 비즈니스맨의 하루

## 교통관제시스템 · 음성인식 신용인증기 · 가상쇼핑몰 ... e - 편한 세상

홍길동 상무는 (주)음악나라의 영업이사이다. 그는 오늘도 정해놓은 시간에 작동되는 뉴스화면을 대형 벽걸이 스크린을 통해 보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와 그가 투자한 종목의 증권소식,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연애가소식 등 그의 관심분야로 구성되었다. 뉴스가 끝나자 일정관리 에이전트가 나타나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두 곳의 업체 방문과 조찬 임원회의 등이었다. 그는 병원 예약을 음성으로 추가시키고 간단한 식사와 커피를 마시며 원격회의에 참석하였다. 사장을 포함한 4명 임원들의 화상이 켜고 그들은 최근에 데뷔한 신인가수의 동영상파일을 같이 보면서 그녀의 음악성과 투자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회의를 끝내자 그는 캘린더 에이전트를 불러 아직 시간 약속이 잡히지 않은 업체의 방문시간을 오후로 잡도록 지시하고, 이어 교통 관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오전에 방문해야 하는 업체의 주소를 입력했다. 교통 관제 시스템 서버는 지역 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과거와 현재의 교통

패턴에 근거해서 즉각 최선의 경로를 계산했고 추천 경로, 통행 시간, 출발 시간을 전송했다. 홍길동 이사가 '경로 보기'를 선택하자 지능형 운송 시스템의 카메라를 통해 집에서 목적지까지의 연속된 풍경이 부위에 설치된 벽걸이 화면상에 전개

되었다. 각 카메라의 화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마치 고속으로 운전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화면의 속도를 올렸음에도 주변 건물들과 정체 지역이 파악되었다. 차에 타면서 홍이사는 전면창 표시장치에 경로와 함께 그의 위치 추적 시스템(GPS)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통행료는 도로상의 감지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과되었다.

업체에서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최종 계약서는 가상 법률 사무소로 전송되어 전자적인 일시 기록과 공증 처리되었다. 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은 신용 인증기의

음성인식 시스템에 오늘 날짜, 시간, 주민번호만 말하면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었다. 처리 결과를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추가하고 캘린더 에이전트를 불러서 확인하니 다음 업체 방문시간은 오후1시로 그리고 병원 예약은 3시로 잡혀져 있었다. 홍이사는 오늘은 여유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에 미소 지으며 노트북 컴퓨터를 닫고

있고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는 21세기 인류를 정보유목민이라고 정의한다. 물이나 농사지를 땅 대신 정보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자라는 뜻이다. 머지않아 전세계는 유무선의 글로벌 통신망으로 묶인다. 그때가 되면 지구촌 네티즌들은 빛의 속도로 네트워크를 헤매는 유목민이 되는 셈이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는 2005년 어느 비즈니스맨의 하루로 미래 사회생활을 가상으로 극화한 시나리오이다.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빛의 속도로 네트워크를 헤매는 정보유목민들의 하루 생활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가능하거나, 새롭게 나타날 기술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본 시나리오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2005년 아니 더 가까운 장래의 모습을 확신한다. 이제 막 시작된 21세기를 미리 비춰줄 요술거울은 없다. 또한 숨겨진 과학기술의 발달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매 18개월마다 같은 비율로 성능이 2배 향상된 반도체 칩을 살 수 있으며(Moore's law), 네트워크의

유용성은 이용자들의 제곱에 비례하고(Marcalfe's law), 광섬유의 성능은 12개월마다 3배 증가한다(Guildler's law).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기만 하면 정말 그대로 구현될 시대가 온다는 의미는 아닐까. 즉 컴덱만 있으면 그를 구현할 기술 격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디지털 혁명은 초고속정보망과 첨단 컴퓨터기술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인터넷으로 묶인 글로벌 월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가치관에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삶은 좋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가까운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를 전개하여 보았고, 이러한 변화에 기술적 기반이 될 정보통신 기술들을 소개하였다. 이 글이 정보의 가공과 유통을 책임지는 정보통신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2주간 노트북을 충전하지 않았으니 이번 주 중에는 충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홍이사는 옛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친구 셋이 모여서 아이디어 하나로 (주)음악나라를 창업하던 시절, 그리고 MP3 파일의 불법 유통과 복제를 막을 방안이 없어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시절을. 불과 5년 전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랐다. 최근에 국제 표준으로 정해진 '퍼스널 락(Personal Lock)'과 워터마크 기술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지적재산권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유용한 보안 장치가 되었고, 불법유통의 수단 이던 네트워크는 그들의 주력 상품인 MP3 파일의 유통비용을 없앴으며,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제품의 특성은 생산비용이란 개념을 없애 정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일찍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홍이사는 아내하고의 백화점 쇼핑 약속에 들떠 있었다. 아내는 부산에 출장 중이었지만 결혼 10주년 기념 선물로 정장 한 벌을 선물하기로 약속했었다. 약속한 시간에 가상 쇼핑몰에 접속하자 아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화면을 공유하며 여러 가게를 둘러보면서 의견을 주고받던 그들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고, 아내가 본인의 몸매를 입력하자 아내와 아주 비슷한 체형의 마네킹이 그 옷을 입고 나와 3차원 패션쇼를 하였다. 단지 문제는 비싼 가격이었는 데 그때까지 단순한 조연만 하던 여점원의 한마디에 속아 주문하고 말았다.

"와! 언니, 몸매 치수를 보니 미혼이신가 봐요. 능력 있는 남자친구를 두셔서 부럽네요."

김 양 우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한국선학회 제12차 학술회의

## 한국선이란 무엇인가

- 신라시대를 중심으로

- (제 1 부) 5월 18일 오후 1시 30분
- △ 신라선의 역사적 의의  
발표: 현각스님(동국대 교수) 토론: 범산스님(동국대 교수)
  - △ 선종 전래 이전의 신라의 선(禪)  
발표: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토론: 이광래(충남대 교수)
  - △ 남종선의 초전사(初傳者) 도의선사의 사상과 그 연원 탐구  
발표: 차차석(동국대 강사) 토론: 목정배(동국대 교수)
  - △ 신라말 동리 산문에 대한 연구  
발표: 이택진(고려대 강사)  
토론: 김영욱(가산불교문화원 연구원)

- (제 2 부) 5월 19일 오전 10시
- △ 신라말 제산문(諸山門)과 선사상  
발표: 김방룡(영산원불교대 교수) 토론: 김영두(원광대 교수)
  - △ 신라말 교종교단과 선종의 제문제  
발표: 인경순(보조사상연구원 실장)  
토론: 김복순(동국대 교수)
  - △ 신라말 유학자의 선종 불교 인식  
발표: 조범환(서강대 박물관 학예연구원)  
토론: 광승훈(한림대 강사)

- (제 3 부) 5월 19일 오후 1시 30분
- △ 신라말 선문회의의 형태와 발전  
발표: 고영섭(동국대 강사) 토론: 조홍훈(한양대 교수)
  - △ 신라말 선종사원의 형성과 구조  
발표: 한기문(상주대 교수) 토론: 이병희(한국교원대 교수)
  - △ 선이론에 나타난 신라선사  
발표: 임병권(대전대 교수) 토론: 박영복(충주대 교수)
  - △ 〈조당집〉 신라선사 기록 부분의 몇 가지 문제점  
발표: 송인성(고려대 연구교수) 토론: 원철스님(해인재 편집장)

장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폰 클리칭을 만나

## “과학,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길”

### 양자 현상 연구 진행 ... 실용가능한 초소형 컴퓨터 제작 기대

개교 95주년을 기념하여 '합성금속 및 양자기능반도체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8일부터 4일간 본교 학술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가한 5명의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클라우스 폰 클리칭(K. von Klitzing)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다.

- 본교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 양자기능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동국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QSRC)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간의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로 보다 긴밀한 연구 활동을 고려하던 중, 동국대가 올해 개교 95주년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초청을 받게 돼 기꺼이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학술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 10억분의 1m 단위의 나노 기술분야의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탄소나노튜브, 전도성 고분자 등 분자·원자 단위의 나노 정보소자와 함께, 현대과학에서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양자 현상에 대한 연구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밖에 단전자 트랜지스터, 전자의 회전운동 방향을 통제하는 스핀트로닉스 등 분자·원자 수준의 나노칩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 학술회의뿐 아니라 특별강연도 하게 되었는데,  
= 양자현상 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얇은 판이



= '나노일렉트로닉스(nanoelectronics)'와 같은 최근의 연구 이론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한국을 4번 방문하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려운 학술내용임에도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었다.

- 85년 노벨상 수상 연구인 '양자홀 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 양자홀 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얇은 판이

강한 자기장 속에 놓일 경우 판 사이에 전압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이러한 현상을 '양자화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양자화 효과의 발견으로 미세한 전자 구성물의 전도성질을 정확히 연구하고 전기저항의 측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은,  
= 최근에는 자발생성, 리소그래피, 합성 나노파티클(nanoparticle) 등을 이용한 나노스트럭처(nanostructure)의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 2차원과 0차원이 결합된 전자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 중이다. 전자 및 광전송에 있어 양자현상의 영향에 대한 연구 활동도 보이고 있다. 최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이러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는 아직 초보단계지만 실제 생활에 이용되면 기존과 다른 초소형 컴퓨터의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노벨물리학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과학,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싶다.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접근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유능한 학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꾸준히 연구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김 상 현 교수의  
역사이야기 (3)

### 황산벌의 영웅들

660년 7월 9일의 황산벌. 한 여름의 그 벌판에서 신라와 백제가 벌인 전쟁, 그 전투는 7월의 불발 더위보다도 더 숨막히는 것이었다. 대장군 김유신, 우장군 김흠춘, 좌장군 풀일이 이끄는 신라의 5만 군사를 황산벌에서 맞은 백제 군사 5천명은 계백 장군이 거느리는 결사대였다. 처자까지 죽이고 출전한 계백은 먼저 황산의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세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군은 세 길로 나누어 공격했다. 그러나 네 차례의 격투에도 전세는 불리했다. 사기가 꺾인 신라병사들은 힘이 빠졌다. 열 배나 더 많은 군사로도 죽음을 각오한 백제군을 당하기란 힘들었던 것이다.

이 때 우장군 김흠춘이 나섰다. 그는 아들 반굴을 불러서 말했다. "신하에게는 충성이 중하고, 자식에게는 효도가 중하다.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성과 효도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이에 반굴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적진에 뛰어들어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다음에는 좌장군 풀일이 아들 관창을 불러서 말 옆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들은 나이 겨우 열 여섯이나 의지와 기백이 자못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삼군의 모범이 될 것이다." 관창은 "예"라고 하면서 말에 올라 적진으로 달려갔다.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관창, 그는 다시 적진으로 돌격했고, 끝내 베어진 머리만이 말안장에 실려서 돌아왔다. 아버지 풀이 장군은 아들의 머리를 안고 흐르는 피에 옷소매를 적시면서 말했다. "내 아들의 얼골은 살아 있는 것 같구나. 나라 위해 죽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이 광경을 본 병사들이 강개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싸워서 신라는 승리할 수 있었다.

김흠춘은 김유신의 동생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 화랑으로 활동했고, 관창 또한 화랑이었다. 우장군과 좌장군은 경쟁이라도 하듯, 그들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사랑하는 자신들의 아들을, 김유신도 슬선수법하던 장수로 유명하다.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는 자기 집 문 앞을 그냥 지나친 김유신을 보면서 군사들은 말했다. "대장군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가족 곁을 떠남을 한탄하겠는가"라고. 석문전투에서 패한 여러 장수의 죄를 논할 때도 김유신은 모든 장수를 용서하면서 오직 아들 원술에게만 엄했다.

삼국 중에서도 작은 나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백성들은 지도층의 공허한 구호나 압력에는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자기를 희생하며, 신의와 정의가 지켜질 때, 믿고 따르는 법이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실이다.

지금 우리의 지도층은 어떤가? 정치인, 언론인, 재벌, 연예인, 교수, 의사, 군고위층, 부장관사 출신의 변호사 등 사회 지도층의 많은 사람들이 박노항 원사의 병역비리 사건에 관계되었다는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할 뿐이다.

### '황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

####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 초청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단장=조용길·불교학)은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황구참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다함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2001학년도 대학원 봄 기획 특강

#### '인간과 기술' 주제로 학술문화관에서

날 짜	주 제 (강연자)
16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 (이기용)
18일	생명공학 - 게놈프로젝트의 현실 (박병상)
22일	현대태사상의 3가지 흐름 (구승희)
24일	인공복합생체체의 정체성과 사회현상 (이종관)
25일	사이보그, 의료기술의 발달 (김보영)

△ 장 소 : 학술문화관 세미나 1실  
△ 시 간 : 오후 6시

### 고수동정



▲원치선 (전자공학)  
=내일(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Contentworld 2001 Global Conference and Exposition'에 참석.



▲임종주 (화학공학)  
=오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Pittsburgh & LA The 75th ACS colloid and surface science symposium에 논문 발표를 위해 참가.

# 영화관, 난 놀러간다!

인간들의 악한 행동을 벌하기 위해 내렸다는 홍수에 노아의 방주는 인간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1년 간의 홍수로 방주에만 간혀 지냈을 우리의 '노아'는 얼마나 심심했는지 상상해 보자. 하지만 만약 노아의 방주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었다면?

흔히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상영관 수가 6개관 이상인 최첨단 설비를 갖춘 영화관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멀티플렉스의 개념은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의미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메가박스' '씨네플러스'를 꼽을 수 있다. 17개관이라는 엄청난 극장 수에 최첨단 시설을 갖췄을 뿐 아니라 대형수족관 및 쇼핑몰, 외식업체, 대형서점 등의 부대 시설은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응축시켜 놓은 듯하다.

세계적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부터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10개 안팎의 상영관 수를 보유한 영화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시대가 열렸다. 그에 비해 기존의 단일 상영관이나 2~3개의 상영관만을 가졌던 극장들은 관객의 유출로 인해 극심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지난 7월 문을 담은 키네마극장과 공사 중인 대한극장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영화를 선택한 후 영화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선택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관

객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객의 영화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관객이 기존의 영화관을 뒤로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함께 형성된 복합 편의시설은 관객들에게는 금상첨화의 보너스가 아닐 수 없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21개 스크린을 확보해 주변상권과 긴밀한 소비시장 형성으로 성공한 곳도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20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메가플렉스 영화관까지 등장해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장점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극장을 포함한 거대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나친 상업주의로 치닫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것은 비단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화관과 영세 상점들의 폐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주인공 토토가 알프레도 아저씨가 남기고 간 필름을 추억의 영화관에서 돌려보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토토가 꿈을 키웠던 시골의 소박한 영화관은 이제 추억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 버릴 지도 모른다. 우리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노아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토토의 추억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품고 있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 “비평은 문학과 독자를 이어주는 다리”

## 문학의 관습·전통 이해로 새로운 감각 비평



황종연 교수

- ▲ 1960년 서울출생
- ▲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동 대학원 졸업
- ▲ 미국컬럼비아대 대학원 수학
- ▲ 본교 국문학과 교수
- ▲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
- ▲ 소천비평문학상(1993) 수상
- ▲ 고석규비평문학상(1997) 수상
- ▲ 팔봉비평문학상(2001) 수상

비평가로 활동 중인 본교 황종연(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지난 2일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팔봉비평문학상' 12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종연 교수는 92년 계간 '세계의 문학'에 '반근대의 정신'을 발표하며 등단한 후 활발한 비평 활동을 해왔으며, 첫 평론집 '비루한 것의 카니발'로 본 상을 수상했다. 본교 국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이기도 한 황종연 교수를 만나 수상 소감과 문학비평의 의의에 대해 들어보았다.

- 문학비평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한 소감은.  
= 분에 넘치는 영광이다. 그동안 팔봉비평문학상의 수상자들은 오랜 기간 활

동해온 중진급 원로 평론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첫 번째 평론집으로 수상한 사람은 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 평론집 '비루한 것의 카니발'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비루한 것'은 최근 우리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패덕자, 범죄자, 미치광이를 말한다. 이 비루한 것들은 문학을 통해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고 기성 질서에 대한 반란을 꾀하는 '카니발'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 양상은 주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며, 젊은 작가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 언어를 자유롭게 조합하고 변화시키면서 자기 세대 삶의 양식에 충실한 글을 쓴다. 이런 작가들이 주로 활동한 90년대의 다양한 실험과 변화가 돌보는 시대문학에 대해 내 나름의 일관되고 집중적인 시각을 평론집에 담았다.

- 현재 문학이 맞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산업이 팽창하고 다국적인 소비문화가 정착하면서 문화생산과 소비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졌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영상매체가 출현한 것도 한몫 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학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급격한 동요를 일으키면서 문학 자체 내에 비판과 의심이 싹튼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문학이 이 난관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속히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 교수님의 비평관이나 평소 문학 비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 비평이란 문학작품이 산출하는 새로운 인식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지각이나 인식, 상상을 풍부하게 해주는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작품의 새로움을 알아보고 비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텍스트가 과거의 작품들 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의 참신하고 틀을 벗어난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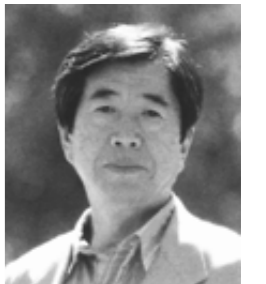
-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문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한 작품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참여, 전인격적인 체험이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의 성숙과 재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해 독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학에 관한 글보다는 문학작품을 읽으며 많이 사고하고 느끼고 체험해보도록 권하고 싶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 독재의 공전



김태준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5월은 녹음과 방초가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로 가끔 남산을 오를 수 있는 여유만으로도 우리에게 특권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 5월은 한편으로 5.16 쿠데타가 이땅에 군사독재의 씨를 뿌린 잔인한 역사로 가슴 아프고 우울한 달이기도 하다. 이런 5월에 군사독재의 총칼의 탄압과 사상적 검열에 붓으로 맞섰던 작가들이 이번에는 몸으로 다시 일어났다 한다. 박정희 기념관의 설립반대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인 현기영을 비롯하여 이경자, 김영현에 이어 지난 4일에는 군사독재 최대의 희생자였던 '오적'의 시인 김지하가 시위에 나섰고, 이날 시청 앞 시위장에는 20여명의 문인 작가들이 함께 나와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타는 목마름으로'를 함께 불렀다. 보도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메아리친다.

현기영이나 김지하 등은 벌써 60의 나이이지만, 60년대 초에 대학생으로 대일 굴욕외교 반대 거리시위에 참가하고 육고를 치른 세대이다. 뿐만 아니라 74년 박정희 군사정권의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로 유신독재의 기세가 날로 포퓰리스트화되면서 김지하는 그해 4월 체포되어 사형수가 되었고, 이에 맞서서 문인들은 자유실천문인협회를 결성해서 저항했다.

그런데 4.19 학생혁명으로 이제 겨우 시작되던 한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의 싹을 군화발로 짓밟았던 장면인, 30년 군사정권의 악순환을 야기하여 한국의 정치문화를 수습한 후퇴시킨 박정희의 기념관이냐? 더구나 김지하 시인이든 팻말에는 "독립군 학살한 일본군 장교 박정희 기념관에 서울 시민 땅 한치도 내놓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과연 군사 독재자이기 이전에 독립군을 학살한 일본군 장교였는데 생각이 미치면, 국민의 혈세 200억으로 이런 사람의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과 일본 교과서 왜곡을 함께 규탄해야 하는 현실이 어찌 민족의 비극이 아닐 것인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나 독재는 용서할 수 없다."  
옳다. 더구나 일제의 장교로 독립군을 짓밟은 역사는 군사 독재자에게 앞서 친일파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오늘 이 문인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외친 작은 절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민족적 아시아적 함성과 함께 어떤 허구의 공전도 용납하지 않는 큰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 자아소식

## 솔메리아 정기공연



경주 락 밴드 '솔메리아'가 열다섯 번째 정기공연을 가진다. 이번 공연은 선후배가 하나되는 자리로 왁스의 '오빠'와 X-Japan의 'weekend'를 비롯해 락·메탈 10여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컬의 개성 있는 목소리와 기타, 베이스, 드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무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14일) 5시 30분. 원효관 소강당 II에서. 문의 054)770-2797

## 큰저소리 연주회



경주 락 대금 동아리 '큰저소리'가 첫 번째 연주회를 연다. 이번 무대는 친숙한 우리 민요 '한오백년' 등을 정악대금 선율로 들려주고, 굿고 밧음이 분명한 '김동진류' 연주법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불교문화대 풍물 동아리 '니르바나'의 사물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8일 6시 30분. 원효관 소강당 II에서. 문의 054)770-2744

## 한국문학번역상 공모

한국문학번역원(원장=박환덕)은 '한국문학번역상'과 '특별상'을 각각 공모한다. 한국문학번역상은 지난 96년부터 올해 4월말 사이에 번역돼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 고전·현대 문학작품과 작품집을, 특별상은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에 기여한 출판사 또는 출판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문예진흥원이 주관해왔던 정부의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난 3월에 출범한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며 오는 8월 15일 접수·마감한다.

## '게이문학 NO.1' 출간

게이문학닷컴(www.gaymunhak.com)은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게이문학 무크지 1호 '게이문학 NO.1'을 출간했다. 이번 출간된 '게이문학 NO.1'은 그동안 인터넷 웹사이트 게이문학닷컴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해온 작가들이 동성애자들의 삶과 정체성 문제를 다룬 게이문학을 선보인다. '게이문학 NO.1'의 출간은 문학의 한 편에서 음성적으로 존재해왔던 게이문학이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매체비평

#### 애니메이션 편

#### 프린스 앤 프린세스

“애니메이션은 머무르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미학에 도전할 뿐”



실루엣 애니메이션 '프린스 앤 프린세스'.

애니메이션에는 여러 가지 제작기법이 있다. 본래 애니메이션이라는 예술장르는 '만화영화'라는 의미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의미를 대중들에게 숨기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이 필름(animated film)의 약자이며,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트리플의 기법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특이한 제작기법이다. 실사영화의 촬영카메라는 자동적으로 1초에 24장의 사진을 찍으며 동영상상을 기록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촬영 카메라는 1초 분량의 동영상상을 만들기 위해 매 프레임마다 분리하여 한 장씩 촬영하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제작기법이 가능한지도 모른다.

1996년 '월레스 앤 그로밋'이 개봉되었을 때 사람들은 인형 애니메이션의 단조로움과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걱정을 했다. 그러나 영국 아드만사의 정교함은 이 작품의 대중적 흥행을 성공시켰다. 닉 파커 감독은 그의 열정적인 제작을 통해 인형이 살아 숨쉬는 진짜 배우들보다 더욱 뛰어난 연기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뛰어난 시나리오와 속도감은 인형 애니메이션에서 미리 포기하고 있던 리얼리즘을 확신시키면서 관객들을 놀라움의 세계로 안내했다. 실로 애니메이션의 미학적인 흥분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호르는 시간의 공간 속에서 정지된 이미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새로운 의미를 지닌 이미지로 다시 태어난다. 결국 시간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미학이 애니메이션의 경이로움을 완성시켰다

고 할 수 있다. 닉 파커 감독은 이러한 실험적인 인형 애니메이션의 성공으로 드립웍스의 직접적인 투자를 얻어냈고, 닭들의 거대한 탈출을 형상화한 '치킨 런'을 개봉하게 된다. 실로 전 세계가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열풍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었다.

2001년 5월 다시 새로운 제작기법이 국내에 개봉되고 있다. 그림자만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는 바보스러울 정도의 제작기법, 실루엣 애니메이션 '프린스 앤 프린세스'가 그것인데, 이 작품은 이미 200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에게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작품이다. 프랑스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특이한 제작기법의 재미없을 듯한 애니메이션, 그래서 더욱 관객들

을 놀라게 하는 전형적인 아날로그식 실루엣 애니메이션 '프린스 앤 프린세스'는 사랑에 대한 해석을 가장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기법임을 느끼게 한다. 모노크롬의 검은 그림자만으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 넓은 공간에 자리잡은 소심한 왕자와 마법에 걸린 공주, 그리고 순수한 소년과 여왕 등 다양한 사랑의 대상들이 스토리의 조용한 재미를 만들어 낸다. 중간부분에 눈에 들어오는 감독의 애교, "지금부터 1분동안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옆 사람과 수다를 떨어도 좋습니다" 역시 아날로그식 여유는 관객들에게 솔직하고 편안한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한창완

서울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우리 마음 속 영원한 어버이, 스승이시여!

## 선생님의 교수님의 은사님!

아침 저녁으로 살뜰한 간지럽히는 뽕송한 공기의 감촉이 엇그제네 벌써 지리한 여름의 뜨거운 인내를 준비하듯 늘어져 지친 풀더미 속에서 흰 제비꽃을 본다.

돌연변이 흰 제비꽃을 북한산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던 터여서 그 곁에서 핑계감에 쉬어본다. 해마다 국어교육과 백일장이 있는 5월 어느 하루는 김장호 선생님과 북한산을 오르는 날이었다. 오늘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난 지금 선생님의 자취를 밟아 쉬는 자리마다에 펼쳐 놓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다시 시작되는 푸서릿길(거칠고 잡풀이 무성한 땅에 난 길)을 동행한다.

선생님 돌아가신 지 벌써 두 해째! 늘 해오던 습관대로 선생님 행적을 밟아가지만, 이젠 안 계신 허전함은 여지없이 5월을 시리게 한다.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선생님들 중 그 어느 한 분 귀히 존경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만, 그래도 그 중 내 마음에 가득히 품향을 안겨주는 김장호 선생님! 뛰어난 학식과 신들린 가르침, 감성과 의지의 작품 활동과 세심한 열정의 산행, 그리고 개인적 자상함과 사랑. 이 모든 모습과 행적들을 통해, 진정한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

을 깨닫게 해주시며 내게 지워지지 않는 당신의 자리를 만드셨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마음이 고통하는 몇몇이 선생님을 모시고 술잔을 한 순배 돌려야 한 계절을 보내고 또 맞이하곤 했는데... 어디에선가 예리한 칼날처럼 다가온 애뜻한 그리움이 가슴을

●●  
내가 그랬듯  
제자들이 내 그늘에서  
쉴 수 있기를

●●  
재빠르게 배어버린다. 아, 배인 자리에는 섬뜩할 만치 싸아한 아픔이 남으며 내 존경하는 스승님들의 하나 둘 떠나시는 뒷모습에 가슴이 찢어온다. 나는 과연, 스승님들이 내게 준 힘과 사랑만큼 나의 아이들에게 무사정한 정열과 의욕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온전하게 베풀 수 있을까?  
얼마 전, 예전에 내 강의를 한 학기 정도 수강했던 일본인 가모 요시코 씨가 한 권의 책을 내고, 그 안에 내게 감사의 글을 길고 길게 남겼다.

오랜 시간 동안도, 그렇다고 특별히 깊이 있는 관심도 제대로 못 준 아쉬움에 그 유학생의 글은 나를 많이 부끄럽게 했다. 그러나 난 그로 인해 깨달은 바가 있다. 그렇다. 내게 내려주신 그 많은 스승님들의 후광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뜨겁게 내 제자들을 위해 보시하며 살라는, 많이 퍼가는 우물이 가장 맑은 법임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라는 것임!

“첫모 방전에 새 까먹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어느 참에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귀 아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진정한 어른을 벗어나 새롭게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하는 진정한 21C의 키워드는 역시 인간 중심이다. 이 세상에 언제나 넉넉한 안길 수 있는 푸른 산 같은 우리 시대의 스승이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허망해도 역시 인간 사이에는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이 존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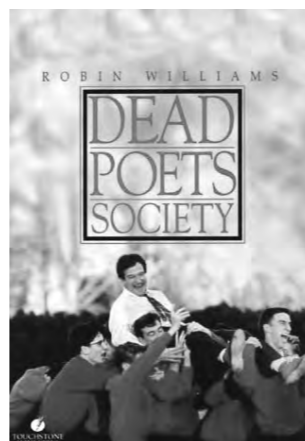
이 글을 마무리하고 난 대전에 간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으면서도 교육자로서 의의만을 걸어온 강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전의 그 선비 자세를 잃지 않으신 채,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나를 맞아주시는 우리 최세화 선생님을 비려 가련다. 선생님의 제자이자 또한 이제는 나의 제자로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두 명의 후학을 대동하고서!

김혜숙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 스승의 사랑은 미디어를 타고

### 죽은 시인의 사회



“oh! captain, my captain!”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웰튼 고등학교를 떠나야 하는 키팅 선생님을 향해 학생들이 눈물 머금고 외치던 소리는 현실의 이별을 인정할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다. 제도 교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교육을 펼치던 키팅 선생님을 통해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주었다.

### 오리온 초코파이 정(情)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만 보아도 알아...”  
우리 귀에 익숙한 로고송과 함께 정(情) 시리즈로 유명한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에도 스승과 제자가 등장한다. 넓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달려가는 한 아이와 교실 창가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모습. 그리고 초코파이와 함께 남겨진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아이의 메모는 광고의

컨셉 그대로 사제간의 정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 작은 매개체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다정스러워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 쌍용 기업 이미지 광고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  
1984년 스승의 날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메인 카피와 도시락 두 개를 나란히 놓은 비주얼을 내세우며 각 신문 1면 광고단을 차지한 쌍용의 기업 이미지 광고. 집안이 어려워 밥을 굶기 일쑤였던 어린 시절, 2개의 도시락을 준비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스승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 버린 제자가 지난 시절 스승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제시된 ‘... 찬물 한 주발로 빈 속을 채우시고는 어린 마음들을 달래시려고 그 후 그렇게나 자주 속이 안 좋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은 긴 세월이 지난 뒤였습시다. ...’라는 바다 카피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스승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표은영 기자  
pisk20@dongguk.edu

## 불가의 사제지간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알 껍질을 향해 끊임없이 쪼아낸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어미 닭은 알 껍질을 마주 쪼아주면서 병아리의 탄생을 기다린다. 바로 알과 밖의 두 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가 온전하게 태어날 수 있다는 ‘출타동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스승은 제자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제자는 스승의 지도를 잘 따랐을 때 깨달음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불가에서 사제지간은 서로의 노력이 더해질 때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에서 스승의 가르침은 물음의 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비록 대화의 형태는 수동적이지만 스승의 물음에 답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불가에서는 사제관계를 위계적인 상하구조보다는 깨달음을 찾아가는 참된 친구로 보고 있다. 물론 지식과 지혜에서 비롯된 위엄도 사제관계의 윤리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이만(불교학) 교수는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며, 가르침과 배움에 정진하는 하나의 자체는 둘이 아님을 밝히는 깨달음이 된다”고 말한다.

소설 ‘아재아재 바라아재’의 주인공 은선님은 제자인 철화가 자기의 뜻을 저버렸음에도 철화를 버려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핌으로써 불가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많이 퇴색되고 변질되어버린 지금의 사제관계. 이제 진정한 ‘출타동시’의 길을 은선스님과 철화의 모습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정윤미 기자

copy@mail.dongguk.ac.kr

## 메아리

### 1등 '공신'

▲4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박세리는 로랄 디아즈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벌써 올 시즌에만 2승이다. 그녀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어 자랑스런 이름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데뷔 3년 4개월만에 'LPGA' 10승이라는 감격을 맛보았다. 결국 박세리는 골프를 통해 세계 속에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1등 공신인 셈이다.

▲지난 6일 한 골프장에서 연한 3당 지도부들이 호화스러운 골프모임을 가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관월대에 달하는 거액의 내기상금을 걸고 고가의 선물과 최고급 외제 양주를 주고받았던 이들은 지도자의 자질을 의심케 만든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어쨌든 정치인들은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1등 공신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파장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신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골프는 하나의 스포츠이다.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듯이 그들 또한 아주 당당히 그들의 사생활을 즐겼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난국을 고려해 볼 때 천만 원대를 오가는 내기상금 이야기를 농담이었다고 가볍게 말하는 그들의 태도는 불순하기까지 하다. 과연 그들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층인지 의심스럽다. 정리해

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신용불량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난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지도층들이 호화골프를 치면서 내 방식대로 문화생활을 즐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앤지 골퍼는 스포츠는 사치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향유 놀이로 인식되던 골퍼는 박세리, 김미현이라는 세계적 골퍼 스타의 탄생으로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숙한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국민들은 TV 골프중계를 보면서 먼 미국 땅에서 이들이 휘두르는 스윙 동작에 스트레스를 풀고, 시름을 달래낸다.

하지만 민심을 외면한 채 호화스럽게 골프를 즐긴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밖에 없다.

이소라 여론부장

bbang@mail.dongguk.ac.kr

# 소나기

### '유전면제 무전현역' 교리무는 병역비리



△유전면제 무전유죄.  
 △돈 있어서 군대 안가는 사람들 좋겠다.  
 △이 바닥이 다 이렇지 모.  
 요즘 세상에 돈 많으면 안 되는데 있나?  
 △'도'를 아십니까? 아뇨!  
 그러면 혹시 '돈'은 아십니까?  
 △여보게 인검 받을 때 뭘 가지고 가나?  
 '돈' 가지고 가지...  
 △억울하다. 나도 군대 갔는데...  
 평발인 나도 갔는데...  
 △군대 합 가불 만 하다!  
 두 번 가려면 죽고 만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병역비리!'  
 '박노함 저' 인기리에 잘한 판매중.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뭐!  
 상관있나?! 가기 싫으면 돈 가지면 되고  
 뺨 가지면 되지.  
 △남들 하는거 다 하면서 왜 남들 다 가는  
 군대는 안가?  
 △돈은 비리의 온상.  
 친절하게 바르마유모 살자.  
 △교보문고 베스트 셀러 '당신도 군대를  
 안갈 수 있다' 박노함 저, 별책부록  
 박노함이 권하는 낱낱한 군대 가는 법.  
 △우리나라의 특성상 모병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누구나 군대를 갈 수 있다면 나 결코  
 군대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  
 △유권(有權)면제 무권(無權)현역.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끌려가는 수밖에!  
 Re) 자원입대도 안네.  
 △돈 있으면 군대도 안가는 세상...  
 세상 참 좋아졌다!  
 △군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병역 비리 알고 '현역소 가는 길은  
 더 쉽다.'  
 △북한에서 병역비리 알면 쳐들어 올텐데...  
 △대통령이 군인인 시절에도 병역비리는  
 있었다.  
 △이 세상에 모든 비리가 사라지는  
 그 날이 오면 경찰도 좀 흔해질텐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지만  
 이젠 너무하잖아.  
 △지킬 건 지켜야지... 우리 아직 젊잖아?  
 △현역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군 면제는 신의 자식, 공익근무요원은  
 사람의 자식, 군인은 어둠의 자식.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나무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 (1500) 달고치구이 (1500) 불고기비빔밥 (1500)
화	순두부찌개 (1300) 오징어볶음 (1500) 너비아니구이백반 (1500)
수	사리곰탕 (1500) 콩나물볶음밥 (1300) 돈간pong (1500)
목	소고기국밥 (1500) 제육덮밥 (1500) 처갓살림 (1500)
금	떡만두국백반 (1500) 두부김치 (1500) 하이리이스 (1300)

(단위:원)

##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어묵찌개 (1300) 해물탕찌개 (3000) 떡볶이스파게티 (1500) 두부김치 (3000)
화	불고기백반 (1500) 우거지갈비탕 (3800) 후랑크볶음밥 (1300) 오징어덮밥 (3000)
수	시골우거지탕 (1500) 알탕 (3600) 탕수육 (1500) 덕덕구이 (3500)
목	갈비탕 (1500) 영양돌솥밥 (3000) 카레만두 (1300) 삼겹살이채미 (3300)
금	닭갈비볶음백반 (1500) 버섯이채전골 (3300) 돈육산채볶음밥 (1300) 삼치데리야끼 (3300)

(단위:원)

## 개교기념일의 참의미

학생들은 개교기념일을 단순히 집에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날 만큼은 학교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자랑스러운 동국인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학생회도 개교기념일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는 본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는 개교기념일을 4.19행사나 부처님 오신날 행사보다 비중을 두어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는 다음해 96번째 생일인 개교기념일을 모든 동국인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하고 학생회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승철 (사과대 경제2)

## 식당 질 개선 촉구

학교 식당은 전체 이용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학생회관 식당의 경우 경주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당 내부와 음식의 청결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쟁반을 유심히 살펴보면 단무지 한 조각이 나뭇잎고, 추가 배식대는 마치 파리들의 휴식처가 된 듯하다.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런 추가 배식대의 위생 불량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주 기분 반찬이라는 이유로 접시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학생회관 식당의 문제점은 청결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사 후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물 마시는 권리조차 학생들은 있어 버린 지 오래다. 물 한 컵을 얻기 위해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호흡을 누리고 있는 것은 두 대의 음료수 자판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학생회관 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줄로 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음식 가격도 올라 음식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대단했고, 학기초는 지난해에 비해 나아졌다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1학기의 절반 이상이 흐른 지금 학생회관 식당은 점점 학기초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식당에서 실시하는 설문 조사가 학생들의 눈에 형식적인 행사로 비춰지지 않게 식당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지영 (의과대 간호3)



# 동악광장

## 목격글

축하합니다

△정보관리 감쪽길 명해리, 유주현, 남정연 5월 15일 생일축하합니다.  
 △5월 11일 탈 96학번 동희 형의 생일 축하!  
 -탈 집행부  
 △아리랑 00이태성, 01황지영, 99지현언니, 가장 소중한 친구 기정이와 경옥이의 생일 축하해요~  
 -공과대 2학년 김솔기  
 △내 동생 철이야 5월 10일 생일 축하한다~  
 -문과대 2학년 김솔기  
 △임유진! 생일 축하해..현여울(24기 일동) △지리교육과 조교!! 상직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선연  
 △강선아! 여자친구 생일 축하한다.  
 -인철97, 경래  
 △이과대 학근이형♡미혜의 CC탄생을 축하합니다!!  
 -불패인~  
 △상돈, 초희야 축하해! -D.U.C.A C.C Club

# 교양강좌 선택기회 넓혀 줘야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공부를 강요당했다. 흥미가 없더라도 시간표에 있으면 공부를 해야만 했기에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한 참된 공부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매력은 무엇인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교양과 지성을 기를 수 있는 교양강좌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흥미를 느끼는 만큼, 그 분야를 마음껏 파고 들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안다. 당장 지난 수강신청 기간동안 원하는 교양을 수강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원했던 교양강좌는 이미 인원이 다 차고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비어있는 강좌를 시간표에 넣으려니 전공시간표와 중복되어 수강할 수도 없었다.

나는 곧 야간 강좌를 뒤졌지만 등록금 인상에 발맞춘 나의 야간 아르바이트 시

간과 중복되고야 말았다.

'뭘 어쩌란 말이야?' 나는 화가 나서 교양필수과목을 모두 빼버리고, 교양선택과목을 먼저 채워 넣었다. 결국 나는 그 학기 교양필수를 듣지 못했다. 무모한 일이었지만 대학생으로서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어쩔 수 없었다.

등록금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나후한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흥미를 가지는 분야에 학문의 장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하는 처사이다.

노단 시간표 책을 주며 갈만 허울 좋게 선택하라고 하면 다인가? 나에게 진정으로 교양강좌를 선택할 자유를 달라! 학교 측은 교양강좌를 더 많이 개설하고 인기 강좌 역시 더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줘야 할 것이다.

나는 대학생이기를 원한다. 학교 역시 이 학교가 대학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희영 (의과대 의예2)

## 도서관 내 휴대폰 문화의 아쉬움

휴대폰이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의미는 가히 절대적이다.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행여나 집에 휴대폰을 두고 학교에 오면 원인 모를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휴대폰은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한 정신적 약제사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조용한 군중들 속에 정작 깨는 것이 핸드폰 문화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도서관 뒷좌석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기 위해 몇 마디 힘까지 다해 100미터 달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따리리' 벨소리는 나의 가슴을 흔들며 놓고 만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은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기까지 한다.

이런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경험 해버린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 같다.

그러나 고치지 않으면 되지 않기에 방법을 제시하자면 서로를 위한 배려로 조금만 신경 쓰고 도서관에 입실하는 것이다.

조그만 휴대폰 하나가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괴로움을 던져주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기계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선중 (불교대 인도철3)

## 서로 마음 나누는 소중함 깨닫기를

내가 대학에 온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다. 이 기간동안 짧게나마 중·고등학교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에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 중 친구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

대학이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을 뽑듯이 이 곳에 모인 사람들도 벗을 사귀고 있어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친구

들과 생활하며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을 간혹 느낄 때 배려감과 배신감들을 쉽게 지워 버릴 수가 없다. 나 또한 친구들에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섬뜩함마저 갖게 된다.

지금 우리는 생애에서 가장 자유롭고 활기찬 때 만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서로가 마음을 나눈다면 훨씬 의미 있고 따뜻한 대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은주 (인문대1)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 현실감 있는 노동절 기사

실업자는 넘쳐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이 된 상황에서 노동절을 맞아 다뤄준 메이데이 기획기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 상황을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전한 것 같다. 메이데이 집회내용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고, 참가 노동자·학생 등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감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칫 남의 얘기로만 여기고 무관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대학 4년을 마친 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힘든 상황 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와 형제,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의 일이 라는 것을 생각해 한 기사였다.

박현정 (사과대2)

### 설문조사 신빙성 재고를

지난호 문화면에 실린 국내캐릭터 선전과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기사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동안 국내캐릭터가 해외캐릭터에 밀려 설자리를 잃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국내 캐릭터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캐릭터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근 학생들 사이에 엽기토키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남·여 사이 조금씩 차이는 취향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참여 인원이 양 캠퍼스 학생 수에 비해 너무 적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근혜 (관과대 호텔경영3)

## 쓰레기를 통해 본 자율

집으로 가는 도중 난 항상 대운동장을 거치게 된다. 요즘 경주캠 대운동장은 활기가 넘쳐난다. 바로 각 단과대의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기에 가득 찬 학생들이 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 보노라면 나도 그 자리에 뛰어들고 싶은 욕망이 들기까지 한다. 그만큼 대운동장은 대학생들의 탐과 흥이 묻어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분도 잠시 대운동장 스탠드를 유심히 살펴보면 밀려나오는 한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올해 체육대회도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마음 한 곳에 자리잡기 때문이다.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체육대회도 산더미처럼 불어난 쓰레기 더미를 극복하지 못했다. 쓰레기는 각 단과대의 체육대회를 대운동장이 연이어 수용하면서 점차 쌓여가 급기야 봉사하는 학생과 청소부 아주머니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대학이 하위 교육 기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대운동장 스탠드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쉽게 자율을 만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무한한 자율이 무절제한 자율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한다.

김주연 (인문대 고미사2)

### 수화(手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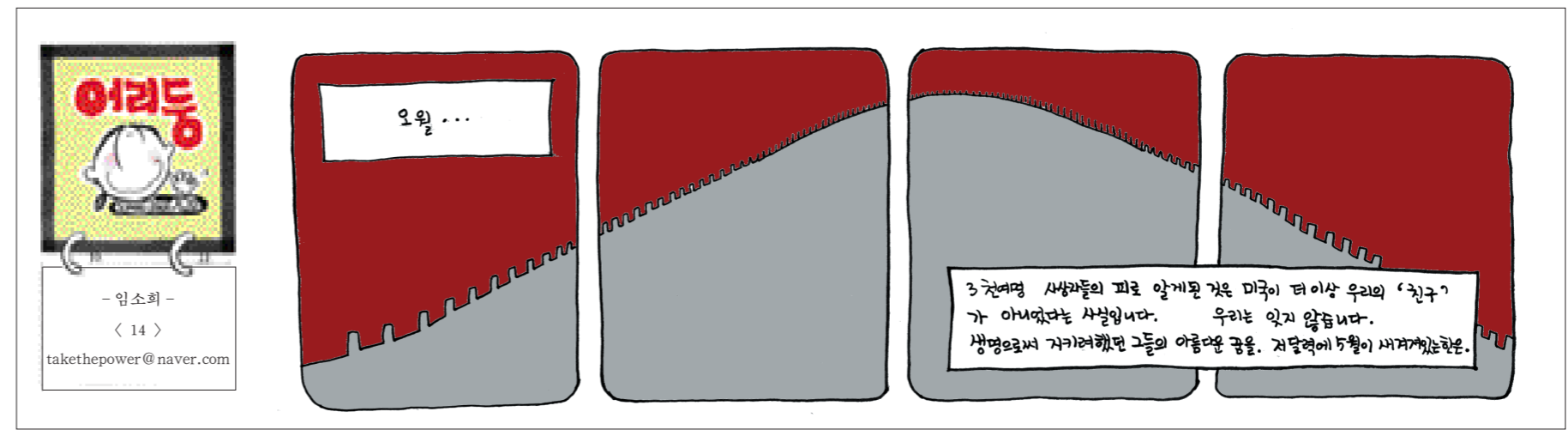
해진혁

말없이 마지막을 맞은 하늘에  
 편스레 안쓰럼을 느끼며 지어설에 올랐단

어젯의 숲소리,  
 어저러이 성치는 가운데  
 조용한 썬분인 가족을 보았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아버지와  
 그것을 좇는 딸아이, 어머니의 눈동자

주부하는 이는 없었다  
 행운의 네임크로버,  
 그것의 육화(肉化)  
 아무도 바가지 않는나  
 세임크로버 속 네임크로버

박철홍 (문과대2)



## 목격글

축하합니다

△MECCS의 TILGirl 나연선 생일 축하해.  
 △5월 19일 연옥이와 연준오빠 2년을 축하해요.  
 -동국여대

**열심히 합시다**

△동국 문화회 봄, 시·소설선 준비 열심히 해요.  
 -남주  
 △탈, 아리랑 전기 공연 연습 열심히...  
 △새로 가입한 01불패인들아!! 내년엔 백상기 우승하자!!  
 -불패인  
 △DUBS 방송제 한다며? 마음 속으로 늘 응원할게!  
 -eng40  
 △상희야, 결혼 축하하고, 경식이 건강해. 이 누님 속좀 썩이지 말고~  
 -이쁜이

**수고하셨습니다**

△38기 형님들 유도하시느라 수고, △호우회 임원단 (특히 인배)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투고쁘니파  
 △봄 농활 다녀오신 야홍 식구들, 문화회 친구들 특히 직장인 후배들 수고하셨습니다!  
 -너의 방밖

## 은방글

축하합니다

△승우야 27번째 생일 very 추카추카 야마도 생일이 5월 29일 일거야? -주니  
 △늦었지만 행정 96 김봉부, 윤미정의 1700일을(2001.5.7) 축하해용~  
 △세희야 니 딸아 '미소'의 백일을 축하한다.  
 -가리 패밀리  
 △김기연 학우 김스 폰 것을 축하합니다.  
 -패밀리 일동  
 △길고 긴 안·공 4학년의 중간고사 엔딩을 축하...  
 -인공 96 김유연  
 △정희야! 진수오빠! 1년 된 거 축하해요.(5.19) 행복해~  
 -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친구야~ 밤새 고민하며 작업하느라 수고했어.  
 -너의 방밖

##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김치국(1300) 김치볶음덮밥(1600) 쇠고기볶음밥(1700) 낙지볶음덮밥(1800)
화	수제비국(1300) 돈까스(1500) 양송이볶음밥(1600) 불고기덮밥(1700)
수	된장찌개(1300) 오징어비빔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팔복채덮밥(1800)
목	어묵국(1300) 참치이채비빔밥(1500) 스페니쉬볶음(2000) 어묵이채덮밥(1600)
금	제육두부찌개(1300) 마파두부덮밥(1500) 김치볶음밥(1600) 불낙덮밥(2000)
토	따로국(1300) 카레리이스(1500) 물국수(900)
일	짬뽕국(1300) 철판이채볶음밥(1600) 물국수(900)

(단위:원)